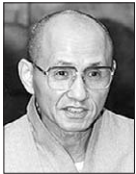


일주 문



라오스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은 6월 3-10 일 라오스를 방문해 '생명의 우물 1000프 로젝트' 사업을 점검하고 영화초등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한다. (02)455-9596



파리미타 사경공모전 시상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6월 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화분회회의실에서 '제11회 전국 청소년 사경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승기신론 강의 영전 은혜사 승가대 학장 지안 스님은 6월 17일부터 스님을 대상으로 서울 미타사 내 대승암에서 <대승기신론>을 강의한다. 011-420-7838(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스님)



강원시립복지원 후원금 전달 성남 심선사 주지 지용 스님은 5월 23일 사부대중 50여명과 함께 강원시립복지원을 찾아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세계차 문화 들차회 (재)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6월 3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세계 차 문화 들차회 2008'을 진행했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또 다른 3년 맞을 것”

열린선원 개원 3주년 맞은 법현 스님

“저희 열린선원이 벌써 개원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에 더 밀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6일 열린선원 개원 3주년을 맞은 법현 스님. 스님이 처음 '저갸 거리 포교'를 표방하며 서울 역촌동 중앙시장 내에 열린선원을 개원할 때는 모두가 놀랐다. 시장 속 선원이라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려와 기대 속에서 스님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지런히 열린선원을 가꾸어 지역 사회 속에 안착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개원 1년이 넘도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

“시장 상인들과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상인들은 하루 종일 자리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선원이 가까이 있다 해서 들어오기까지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생각을 바꿨다. 자신이 먼저 시장에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한 두 바퀴씩 중앙시장을 돌고 다니면서 가게마다 인사를 하고, 물건을 샀다. 일일이 방문하다 보니 고민상담을 청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 늘어났다. 스님의 '적극적 포교'가 지역 사회와 그렇게 맞아떨어졌다. 한 명도 오지 않던 사찰을 등록 신청도만 300명으로 늘었다는 것만 봐도 스님의 원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스님은 지역 신행을 이끌기 위해 문화포교를 주장하고 있

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이후까지' 불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법요집>을 제작, 약 1000부를 배포했다. 스님은 "아직 시행 초기지만 앞으로 법요집과 불교성전, 찬불가를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 각 가정에서 배포할 생각"이라 밝혔다.

새로운 3년을 위한 '3개년 계획'도 세웠다. 새로 올 3년의 첫 사업은 오는 9월 5일-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불교박람회 중에 진행 될 차례특강이다. 여기서 스님이 늘 살펴보고 있는 불교 차례의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불교차례의식 내용을 담은 단행본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약 1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불교아카데미도 더 다양한 콘텐츠로 꾸리려 한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사회의 뿌리와 함께 합일(合一)되는



사람들 가꾸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현 스님은 6월 6일 오후 2시 '열린선원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기념법회는 1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초청법회와 2부 축하 공연으로 진행된다. (02)386-4720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실천승가회, 미안마 구호성금 전달



실천승가회(대표 법안)는 5월 26일 실승회 사무실에서 버마사 이클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국 10개 사찰에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실승회 대표 법안 스님이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 지부(회장 이웅 민씨) 조모아 부총무에게 직접 전달, 사이클론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덕환 기자

구례 화엄사 지역기관과 친선족구대회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5월 28일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기관단체를 초청해 친선족구대회를 열었다. 지역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화엄사 스님을 비롯해 구례경찰서(전·의경), 3세대 장병,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마산면 청년회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구례군 소재 3세대장 이봉주 중령은 "지역단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지역민이 단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팔순기념 서예대전



(사)대선불교조계종 총본산 금봉사는 5월 26일-6월 1일 대구 동구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종정 법왕동산 대종사 팔순기념 선묵서도집 출판 및 서예대전을 열었다. 각 종단 종정스님과 대종스님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26일 개막식에서 동산 스님은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원하자"고 말했다. (053)424-0876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법흥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진행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는 5월 26-27일 미국 일리노이주 에슬린대학 경영학과 학생 21명을 맞아 '몽당연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법흥사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며 한국사회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템플스테이는 경기명상, 스님과의 대화시간, 연등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김강진 기자

영광군, 법성포 수륙대재 조명 학술세미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영광군은 5월 25일 불갑사 주지 만담 스님을 비롯해 이낙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성포 수륙대재'를 주제로 제2회 법성포 단오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조계종 기획국장 미등 스님(불교의례연구소장)과 고려대 전경욱 교수, 전남대 나경수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수륙재의 형태와 기원, 역사성 등을 조명했다. 김성우 기자

“옛 스님들 행적 배워 내일 준비 해야죠”

‘납자필람’ 펴낸 조동종 승정원장 달제 스님

“한국의 스님으로서 우리 역사 속의 스님들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 전래 이후 수많은 고승들이 전승해 온 한국불교의 맥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납자필람>은 선대의 스님들이 얼마나 지극하게 수행했고 포교를 했으며 불교문화를 가꾸어 왔는가를 알자는 취지에서 편찬된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이어 오는데 빠뜨릴 수 없는 스님과 한국교 관계 깊은 중국 일본의 스님 1200명의 행적을 망라한 책 <납자필람(納子必覽)>을 펴낸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원장 달제 스님. 달제 스님은 조동종의 근간을 깊이 연구하여 종지를 세우고 수행자의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부처님 이래 한국불교에 면면히 이어 내려 온 법맥을 정리했다. 스님들이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책 제목에 '필람'이란 말을 넣었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 '절은 있는데 스님이 없어 만 날 사람이 없다'는 구절이 나올



니다. 그만큼 혜초 스님을 비롯한 당대 우리나라 스님들의 학식은 중국을 뛰어 넘었기에 인도로 직접 구법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승가와 재가에 큰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달제 스님은 <납자필람>을 펴낸 것은 “바로 오늘의 승가가 과거 스님들의 행적에서 배울 것을 바로 배우고 오늘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후세를 평화롭게 하는 지혜와 자비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비매품이며 스님은 조만간 증보판을 낼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77세 불자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네팔인 세르찬씨 세계 최고령자로 기록

세계 최고령으로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희수(喜壽: 77세)의 네팔인 민 브라두르 세르찬씨가 5월 25일 오전 8시 40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최고령 등정기록은 2007년 일본인 야나기사와 카츠스케(71세)씨였지만, 이제 세르찬씨가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정자로 기네스북에 남게 됐다.

“2008년 77세 네팔 노인의 에베레스트 등정(SECEE)” 프로젝트

의장 램 진다지 구르 회장(네팔-말레이시아 문화협회)은 5월 28일,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의 후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8년 3월 한국-네팔프렌드십협회(회장 수경)의 도움으로 방한했던 세르찬씨는 문화관광부, 화계사신도회, 재한 네팔인 등 후원에 힘입어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1931년생인 그는 1948년부터 5년간 영국군 용병(구르카)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복무했다. 네팔로 돌아와 사자농사를 지으며 1960년 스위스 원정대와 함께 다왈라기리(해발 8167m)에 오르는 등 세르파(집값)로 활동했다.

“네팔의 분쟁으로 고통 겪는 이웃들이 가슴 아팠다. 네팔·한국을 비롯해 세계 평화를 위해 에베레스트에 오른다”던 세르찬씨는 그의 말처럼 “노인도 젊음이 못지않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세계의 지붕에 오른 77세 불자의 역정은 평화의 메시지로 전세계에 전해졌다. 조동섭 기자



www.dookgong.org

죽음을 준비하는 법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목적있게 사는 법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 수 있다.

서울시 중로구 적선동 19번지 2층 Tel. (02)737-9454 Fax. (02) 737-9456

관음출판사 필름